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정부세종청사 찾아 기재부·농식품부 등 상대로 국가예산 반영·현안 사업 추진 위한 지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간부와 면담하는 등 전주 발전을 앞당길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안상열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주요 사업 담당 과장 등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을 만나 국회 단계의 전주시 국가 예산 반영과 농업 관련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은 먼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에게 △ '전북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우 시장은 농림부로 자리를 옮겨 식량정책실장에게 전주시 미래농업 등 전주시 농업 발전과 노후화된 농업용 수리·배수시설 개선·정비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정부예산안에 지역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더 많은 국가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농식품부 등 상대로 국가예산 활동을 펼쳤다.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삼천 산책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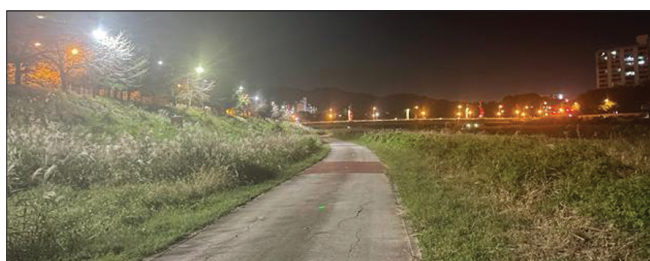
전주시, 이동교~홍산교 구간 LED등 점등 개시... 연말까지 세내교~추천대 사업 추진

많은 전주 시민이 이용하는 이동교~홍산교 구간의 삼천 산책로에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LED등이 설치됐다.

시는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시설이 완료된 삼천 좌안 이동교~홍산교 구간의 가로등을 점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산책로 조도 개선과 공중화장실 신설 등 다양한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전주천과 삼천 등



삼천 산책로 조도개선사업

도심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총사업비 10억6000만 원을 투자해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 또는 신설한다.

시는 먼저 점등된 이동교~홍산교 구간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세내교에서 팔복동 추천대까지 삼천 산책로 약 8km 구간에 대해 LED등 교체(59개소), LED 신설(153개소), 투광기 설치(35개소)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한벽교에서 송천동 한양 아파트까지 전주천 산책로 약 9km 구간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2개소씩 총 4개의 하천변 공중화장실을 신축했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에서 불편함 없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준비 포럼

내달 3일 다양한 의견 종합해 건축 설계 공모 반영키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시립미술관을 다양한 콘셉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비율관 건축'을 주제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준비 포럼'을 개최한다.

전주시립미술관은 옛 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오는 2026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91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건축 및 학예분야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갖는 첫 번째 공개토론회 자리로, 시는 미술관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추진될 건축 설계 공모에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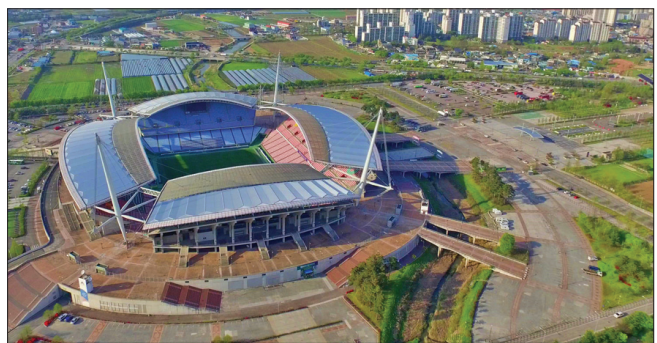
이날 포럼에는 건축 분야의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와 최우영 건축가, 학예분야의 최미옥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다

수 전문가가 참석해 전주시립미술관의 건축적 방향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미술관 건축, 포괄적이고 다성적인 공간 △공간 큐레이팅: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기억과 공감의 경험 △미디어, 미술관, 건축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미술관 건축'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술관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시립미술관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주제별 포럼도 열 계획이다.

황권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립미술관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술관'과 '디지털 시대의 미술' 등 주제별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해 전주만의 특화된 미술관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진행되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원 전경

전주시의회 어린이·청소년 지방의회 체험교실 재개

전주시의회는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지난 8월부터 2개월가량 중단했던 '지방의회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1일 시의원'이 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전주시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급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참가 제한 속에서 4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문의는 시의회 공보팀에 전화(063-230-3733)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한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안내 및 교육, 해당 학교 지역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학생 3분 자유발언, 본회의장 등 청내 견학, 기념품 증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자 어려서부터 의회를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청년 임대주택 24호 공급 추진·사업시행자 선정

전주시는 청년이 찾고오고 머무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24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임대주택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시·도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만 추진돼 온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023년 전주시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급과 운영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신축되는 청년임대주택은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전용면적 30㎡ 이상으로 신축되며, 주택 내부에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간 협소 문제와 리모델링 비용 추가 지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사업시행자와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한 도면협의 및 1차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 체결 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발효식품엑스포 성공 개최 적극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제2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에 적극 나섰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주 월드컵경기장 만남의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전기, 기계, 통신, 건축 분야 직원들로 구성된 공단 TF팀이 운영된다.

TF팀은 행사 기간 행사장 안에 지원 부스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우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행사를 주관하는 (재)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행

사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협조와 조율로 실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행사 기간 20개국의 총 450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참가 인원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발효식품엑스포는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규모 행사"라며 "안전한 진행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행사에 물적,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찾는 전주, 안전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